

I. 연구의 목적과 사업성격

1. 연구의 목적
2. 연구사업의 성격

I. 연구의 목적과 사업성격

1. 연구의 목적

청소년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화 과정 중에 있는 과정적 존재로서 성인기나 노년기의 재사회화 과정 중에 있는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태도나 행위의 변화가 많은 연령층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태도나 행위 중의 상당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높은 변화양태를 드러내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을 갖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성장과정 중의 여러 가지 태도나 의식의 변화양상의 실태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변화의 원인에 대한 인과적인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횡단적인 연구보다는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종단적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의 태도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에 사용되었던 대부분의 조사설계들은 횡단적 조사설계(cross-sectional survey design)로, 첫째, 사건들간의 '인과관계 설정에 있어서 시간적 순서(time order)의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둘째, 인간의 행동이나 태도, 또는 어떤 사건의 시간적인 변화의 유형이나 추세를 파악하고 설명하기가 가능하지 않은 한계를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박창남 외, 2001).

이와는 반대로, 청소년 연구의 종단적 조사설계(longitudinal survey design)는 첫째, 사건들간의 '인과관계 설정에 있어서 시간적 순서(time order)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둘째, 인간의 행동이나 태도, 또는 어떤 사건의 시간적인 변화의 유형이나 추세를 파악하고 설명하기에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종단적 조사설계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적어도 두 번 이상의 서로 다른 시점에서 조사를 시행하는, 전망적 패널 조사설계(prospective panel survey design)는 이러한 두 가지 장점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조사설계의 방법이다.(박창남 외, 2001)

따라서, 전망적 패널조사의 이와 같은 성격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에 있는, '사회화과정 중에 있는 과정적 존재로서의 청소년'의 생활의 여러 측면들을 주제로 다루고자 하는 연구에 적합한 방법이다.(박창남 외, 2001)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과 의의는 전망적 패널조사의 방법으로 얻어진 데이터를 통하여 '사회화과정 중에 있는 과정적 존재로서의 청소년'들의 태도나 행위의 여러 측면들의 종단적 변화양상과 그러한 변화의 원인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를 얻는 데 있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21세기 최초로 청소년기로 진입한 청소년들의 생활현실과 활동실태 그리고 주변환경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추적, 이해함으로써 21세기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연구사업의 성격

본 연구사업의 기본적인이고 구체적인 성격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동일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추적조사하여 종단적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있다.

본 연구사업의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2년 : 1차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준비작업

(연구의 방향설정, 설문지의 개발, 연구방법의 검토, 예비조사)

2003년 : 1차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

(설문지의 확정, 연구방법의 확정, 실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2004년 : 2차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

2005년 : 3차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

2006년 : 4차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

2007년 : 5차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

또한, 종단적 패널 데이터를 단순히 구축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축된 자료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연구성과물의 축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패널조사 이후 구축된 종단적 데이터를 학계와 관련분야의 대학원생이나 교수, 연구원들에게 개방하는 것도 또 하나의 다른 주요한 연구사업의 성격이다.

미국의 NLSY나 한국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KLIPS)등은 패널조사후 구축된 데이터를 관련연구자들에게 매년 개방하고 있다. 한국 노동연구원의 경우, 이 자료를 이용한 논문발표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다수의 양질의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김해동 외, 2001; 한국노동연구원, 2002) 중앙고용정보원의 경우에도 올해부터 구축된 데이터를 일반 학계에 개방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학술논문의 양산을 유도하는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자료의 활용방식에는 일반연구자들에게 그냥 데이터 자료를 자유롭게 개방하여 활용하게 하는 방안과 연구원의 주관하에 기본적인 연구영역을 설정하고, 세미나나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널리 공유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자료의 개방을 일반연구자들에게 그냥 공개하여 자유롭게 활용하게 하는 첫 번째 방안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활용도를 극대화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개방방법이지만, 대체적으로 일반 이용자는 자신의 연구관심에만 국한된 분야의 분석에만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반 연구자들에게 자유롭게 자료를 개방하여 활용하게 하는 방안이외에, 본 연구원에서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기본적인 영역의 과제를 설정하고, 논문공모사업이나 세미나, 심포지움을 통해 체계적인 연구결과의 양산을 유도하는 두 번째의 방법을 함께 병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본 연구사업의 기본적인 성격은 일차적으로는 충실한 종단적 패널 데이터의 구축에 있고, 나아가서는 구축된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학술논문의 양산을 유도하는데 있다.

Ⅱ. 현재까지의 연구진행경과

1. 연구방향의 설정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2. 연구내용의 검토 및 설문(안) 구성
3. 연구방법의 검토
4. 표본관리방안의 검토
5. 실사방안의 검토
6. 예비조사의 실시

II. 현재까지의 연구진행경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 연구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5년 동안 연구대상을 추적조사하여 종단적 패널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있으며, 2002년도 연구사업의 계획은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연구방향의 설정, 연구내용의 검토 및 설문(안) 구성, 연구방법의 검토, 표본 관리방안의 검토, 실사방안의 검토, 예비조사의 실시 등이다. 현재까지의 연구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방향의 설정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본 연구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등 연구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하여 2002년 6월 국내외의 저명한 패널관련 연구자들을 초빙하여, 각 국의 패널조사의 내용과 현황, 연구방법 등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의 내용은 크게 사례연구에 대한 발표 부분과 조사방법에 대한 발표 부분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사례연구에 대한 발표에서는 다섯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우선, 호주 교육연구학회의 연구실장인 샬던 로스먼이 “호주 청소년패널조사(LASY)의 미래방향”이란 주제로 호주의 청소년 패널조사의 내용과 특성에 대해 소개를 했고, 미국 트라이앵글 연구소 연구실장인 스티븐 잉겔스가 “청소년 패널조사: 미국의 최근 경험”이란 주제로 미국 청소년 패널조사의 경험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위원인 방하남 박사가 “한국 노동패널조사”에 대한 소개를 하였으며, 독일 청소년연구소 연구팀장인 크리스찬 알트가 “독일의 아동패널조사: 가족생활양식의 변화와 발전”이란 주제로, 싱가포르 청소년협의회 연구

분석가인 제프리 워이 “싱가폴 청소년지표 조사: 자원중심 접근”이란 주제로 각국의 연구경험을 소개하였다.

조사방법에 대한 발표에서는 세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성신여자대학교의 강석훈 교수가 “패널조사 설계시의 이슈들”이란 주제로 패널 연구조사의 설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 발표를 했으며, 천안대학교 유성렬 교수는 “패널자료에 있어서의 변화의 모형과 측정”이란 주제로, 일본 동경 오차노미츠대학의 시오리 수미야 교수는 “종단 데이터 분석의 방법론적 문제”란 주제로 종단적 데이터 분석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한국청소년 패널조사 국제학술세미나의 진행 순서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 세미나에서 발표된 구체적인 논문의 내용은 별도의 국문 세미나집인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방향과 과제”(한국청소년개발원, 2002)과 영문 세미나집인 “The Direction and Task of Korea Youth Panel Survey 2002”(KIYD, 2002)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며, 일부는 본 보고서의 말미에 재수록하였으므로, 여기서의 구체적인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2002 국제워크숍 진행순서 ■

13:00-13:10

등록 및 개회식

◆ **인사말** 권이중(한국청소년개발원 원장, 한국교원대 교수)

13:10-15:10

주제 발표(1) - 사례연구

사회 천정웅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 ◆ **발표 1** 호주 청소년패널조사 (LASI)의 미래방향
 셸던 로스먼 (호주교육연구학회 연구실장)
- ◆ **발표 2** 청소년패널조사 : 미국의 최근 경험
 스티븐 잉겔스(미국 트라이앵글 연구소 연구실장)
- ◆ **발표 3** 한국 노동패널조사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 **발표 4** 독일의 아동패널조사: 가족생활양식의 변화와 발전
 크리스찬 알트(독일청소년연구소 연구팀장)
- ◆ **발표 5** 싱가포르 청소년지표 조사: 자원중심 접근
 제프리 웹 (싱가폴 청소년협의회 연구분석가)

15:10-16:10

초청토론(1)

- 조혜영(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
- 조아미(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임 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이상오(주성대학 청소년문화학과 교수)
- 박호남(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 팀장)

16:10-16:30

휴 식

16:30-17:50

주 제 발 표(II) - 조사방법

사 회 미리엄 랜즈먼(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교수)

◆ 발 표 6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방향과 과제
이경상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

◆ 발 표 7

패널조사 설계시의 이슈들
강석훈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발 표 8

패널자료에 있어서의 변화의 모형과 측정
유성렬 (천안대학교 교수)

◆ 발 표 9

종단 데이터분석의 방법론적 문제
시오리 수미야 (일본 동경 오차노미츠대학 교수)

17:50-18:20

초 청 토 론(II)

한상철 (경산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민수홍 (경기대학교 교수)

김정환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김선아 (한국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8:20-20:00

종 합 토 론 및 환 영 만찬

William Angel(전 UN 청소년국장)

함병수(한국청소년개발원 기획조정실장)

이혜연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

백지숙(한국청소년개발원 초빙 부연구위원)

서정아(한국청소년개발원 전문연구원)

2. 연구내용의 검토 및 설문(안) 구성

연구내용의 검토 및 설문(안) 구성은 일반적으로 조사 연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은 종단적 패널 조사연구의 경우에는 설문지의 내용이 한번 확정되면 종단적 연구기간 내내 수정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문항, 잘못된 설문지 구조 등의 설문구성의 오류는 연구 전반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되는 부분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 연구조사의 기본적인 목적은 청소년 성장과정상의 여러 가지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살펴보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연구내용 및 설문구성을 위해 설정한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 정책적 측면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인가? 즉, 학문적, 정책적 수요가 있는 연구주제인가?

둘째, 종속변수의 문제 : 학문적, 정책적 측면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라 하더라도, 종단적 연구에 꼭 필요한 내용인가? 종단적 연구를 할 가치가 있을 만큼 조사기간인 5년 동안의 시계열적인 변화가 예상되는가? 즉, 변화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안정적인 것으로 예상되어, 횡단적 조사만으로도 충분한 연구주제는 없는가?

셋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의 측면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시간적 인과관계’의 측면을 분석할 경우, 독립변수의 변화량이 종속변수의 변화량과 시간적(종단적) 인과관계를 가질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항목들인가? 이론적 배경에 부합하는가?

넷째, 변수의 문제 : 학생들이 대답하기 쉬운 용어인가? 응답유도형 질문은 없는가?

다섯째, 변수배열의 문제 : 학생들이 응답하기에 자연스러운 형태

인가? 학생들이 응답하기에 자연스러운 형태이면서도 변수배열이 신뢰도관련 응답유도형이지는 않는가?

여섯째, 변수의 포괄성 문제 : 조작화하는 과정에서 묻고자 하는 연구주체의 중요한 하위변수들이 다 포괄되었는가? 혹시 빠진 것은 없는가?

일곱번째, 척도의 문제 : 학생들이 대답하기 쉬운 척도형태인가? : 변수내용에 비취 척도구성이 포괄적이고 상호 배타적인가? : 통계분석 기법상 적절한 척도의 형태인가?

여덟번째, 설문지 편집의 문제 : 학생들이 응답하기 쉬운 형태의 편집인가? : 학생들이 응답시 착오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강조표시는 적절한가?

아홉번째, 설문지 분량의 문제 : 설문지 분량이 응답시의 비표집오차의 발생, 나아가서 향후 표본탈락률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가? 그리고, 제한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행이 가능한 분량인가?

열번째, 설문지 분리의 문제 : 종속변수에 따른 조사 대상 연령설정의 기준이 달라 분리할 경우, 설문지는 어떠한 구조로 몇 개의 설문지로 구조화할 것인가?

열한번째, 설문 항목 중에, 5년 동안의 조사기간중 매년 조사해야 될 항목과 격년, 삼년 등 연차를 두어 조사해야 될 항목은 어떠한 것들인가?

이상의 항목들이 연구내용과 설문구성을 위해 설정된 기준들이다.

연구내용의 검토와 설문구성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는 연구내용의 설정과 설문구성의 초안정도이다. 향후, 좀더 시간을 갖고 정밀한 이론적 안내와 연령기준의 검토, 설문항목별 조사시기의 선정 등에 관한 연구진의 세밀한 검토작업과 관련학계 전문가의 세밀한 자문 등의 작업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교한 설문지를 완성할 예정으로 있다.

현재까지의 검토를 통해서 설문구성을 위해 설정된 조사영역은 “청소년 관련 영역”, “청소년활동 영역”, “진로, 학교 및 지역사회 영역”, “자아관과 인생관”, “부모관련 영역”, “패널협조관련 사항 및 면접후 기록 분야”이다. 각 분야의 하위영역과 문항의 내용 및 문항수는 다음의 표의 내용과 같다.

<표 II-1> 청소년 패널 조사 설문구성(안) 하위 영역구조

구분	하위영역	문항 내용	문항수
I. 청소년 문항	1. 일반적인 특성	성별, 종교 부모님 유형, 현재 동거인, 친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은 이유, 현재 동거하는 가족 수, 출생순위, 형제,자매들 간의 우애, 생활수준	11
	2. 건강	키와 몸무게, 질병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은 경험, 질병 치료에 소요된 기간, 하루 수면 시간, 현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생각, 초경 및 몽정 경험, 초경 및 몽정 경험 시기	7
II. 활 동	1. 동아리	동아리 참여 유무, 동아리 종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기간, 일주일 동안의 동아리 활동 횟수	4
	2. 봉사활동	봉사활동 참여경험, 봉사활동 참여시간, 가장 많이 참여한 봉사활동영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	4
	3. 여가	평일과 주말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 여가를 함께 보내는 사람, 평일과 주말에 주로하는 여가활동, 신문 읽는 횟수, 지난 일년간의 독서량, 지난 일년간 영화/콘서트/연극/음악회/전시회 관람 횟수, 일주일 간의 운동 시간, 하고있는 운동의 종류	8
	4. 용돈	용돈을 주는 사람, 용돈 받는 횟수, 1달 평균 받는 용돈, 실제 사용하는 한달 용돈, 용돈이 부족할 경우 용돈 조달방법, 용돈 사용처, 휴대전화 소지 여부, 한달 휴대전화 사용시간	8
	5.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경험,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 아르바이트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4
	6. 인터넷	컴퓨터 소유여부,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 사용 용도, 인터넷 하는 장소	4

구분	하위영역	문항 내용	문항수
III. 진로·학교 및 지역사회	1. 진로	부모님과 본인이 원하는 장래직업, 진로선택에 대한 태도, 부모가 원하는 장래의 학생의 교육수준, 학생 자신이 원하는 장래의 교육수준, 지각이나 결석 횟수, 학교 성적, 학교 수업을 제외한 하루 평균 학습시간	12
	2. 사교육	학원/과외수업 유무, 학원/과외수업 과목, 과외 형태, 과외수업 횟수, 과외의 효과, 과외수업이 학교공부 고민 해결에 주는 효과	6
	3. 학교환경	학교 환경에 대한 태도, 학교주변 유해업소, 유해업소 이용 빈도	21
	4. 문제행동	문제행동의 빈도, 가출 후 거주지, 가출 후 행동, 가출 후 생활비 조달 방법, 흡연량, 음주 빈도, 음주 후 행동, 성관계 대상, 원조교제 경로, 원조교제 동기, 학교폭력 피해빈도, 학교폭력 피해 후 신고 대상, 학교폭력 피해 신고 효과, 학교폭력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	33
	5. 친구	친한 동성친구 수, 친한 동성친구를 사귀게 된 경위, 친한 이성친구 수, 친한 이성친구를 사귀게 된 경위, 근신/정학/퇴학을 경험한 친구 수, 경찰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친구 수, 문제행동을 한 친구 수, 친구들에 대한 태도, 학교에 대한 태도	22
	6. 학교생활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17
IV. 자아관과 인생관	1. 자아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공격성, 자기조절감	30
	2. 인생관과 고민	인생에서 중요한 것, 고민의 주제, 고민 의논 대상,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27
V. 부모 문항	1. 일반적 사항	부모나이, 부모직업, 부모 종교, 부모 학력, 아버지의 흡연 여부, 아버지의 음주빈도, 아버지의 음주 후 문제행동 유무	7
	2.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님과과의 말다툼 빈도, 부모님 관계	37
VI. 패널 협조 관련 사항 및 면접 후 기록	1. 패널협조 관련 사항	향후 설문조사에 관한 지속적인 협조 의향, 받고 싶은 보답 선물, 응답자 이름, 응답자 부모님 거주주소, 부모님 집 전화번호, 부모님 휴대전화번호, 조사원 이름, 아이디	9

이러한 연구영역분야를 조사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조사문항 및 척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 일반적인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종교”, “부모님 유형”, “현재 동거인”, “친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은 이유”, “현재 동거하는 가족 수”, “출생순위”, “형제, 자매들 간의 우애”, “생활수준”의 항목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우선 성별은 “성별은?”이라는 질문을 하고 “① 남, ②여” 중 해당하는 곳에 표기하게 하였으며. 종교는 “종교는?”이라는 질문을 하고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천도교, ⑥ 원불교, ⑦ 무교, ⑧ 기타”로 구성된 척도 중 해당 번호에 표기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부모님의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당신의 부모님은?”이라는 질문을 하고 “① 친부모 두분, ②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③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④ 친아버지 한분 ⑤ 친어머니 한분, ⑥ 두분 모두 안 계신다, ⑦ 기타”중 해당하는 곳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동거인을 측정하기 위해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하고 “① 친부모 두분, ②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③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④ 친아버지, ⑤ 친어머니, ⑥ 할아버지, 할머니 ⑦ 친척, ⑧ 형제자매, ⑨ 친구, ⑩ 기타”의 보기 중 해당하는 곳에 표기하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친모님과 동거하지 않는 이유를 측정하기 위해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고 “① 돌아가셨다, ② 아프시다(병원, 요양소 등) ③ 이혼하셨다, ④ 별거 중이시다, ⑤ 부모님이 다른 지방 혹은 다른 나라에 계신다(기숙사, 하숙, 자취, 유학 등), ⑥ 사업실패 등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⑦ 기타”의 보기 중 해당하는 곳에 표기하게 하였다.

또한 현재 동거하는 가족 수를 측정하기 위해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수는?”이라는 질문을 하고 직접 인원 수를 기입하게 하였다.

출생 순위를 측정하기 위해 “출생순위: ()남 ()녀 중 ()째”라는 질문지에 자신의 출생순위를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형제 자매들간의 우애를 측정하기 위해 <표 II-2> 의 세 가지 진술을 제시하고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라는 5점 리커트 척도에 동의의 정도를 응답하게 하였다.

<표 II-2> 형제, 자매들 간의 우애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

번 호	문 항
1)	나의 형제자매들은 사이가 좋다
2)	나의 형제자매들은 경쟁적인 관계이다
3)	나의 형제자매들은 서로 무관심하다

마지막으로 가정생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가정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① 하 ② 중하 ③ 중 ④ 중상 ⑤ 상” 중 해당하는 곳에 표기하게 하였다.

청소년 : 건강

건강은 “키와 몸무게”, “질병으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은 경험”, “질병 치료에 소요된 기간”, “하루 수면 시간”, “현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생각”, “초경 및 몽정 경험”, “초경 및 몽정 경험 시기”를 묻는 문항들을 통해 측정하였다.

먼저, 키와 몸무게는 “키__cm, 몸무게 __kg”란에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질병으로 인한 학업에 지장을 받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질병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① 있다, ② 없다”로 답하게 하였으며, 질병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은 경우, 질병 치료에 소요된 기간을 측정하기 위해 “질병을 치료받는데 소요된 기간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라고 질문하고 소요된 기간을 개월수로 기입하게 하였다.

또한 하루 수면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하루에 몇 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합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수면시간을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현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요즈음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묻고, 이에 “① 나는 전혀 건강하지 않다 ② 나는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③ 나는 건강한 편이다, ④ 나는 매우 건강하다”중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기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초경 및 몽정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초경 혹은 첫 몽정을 경험하였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이에 “① 예, ② 아니오”로 답하게 하였으며, 초경 및 몽정경험이 있을 경우 그 시기가 언제인지 측정하기 위해 “언제입니까?”라고 질문하고 경험시기를 만 나이로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청소년 활동 : 동아리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참여 유무”, “동아리 종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기간”, “일주일 동안의 동아리 활동 횟수”를 묻는 문항들을 통해 측정하였다.

동아리 참여 유무는 “현재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이에 “① 예, ② 아니오”로 답하게 하여 측정하였으며,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 종류를 측정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동아리입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① 교내 공식 동아리 (방송반, 컴퓨터반 등 학교에서 인정한 모임), ② 교외 공식 동아리 (홍사단, 한별단, RCY, YMCA, 청소

년 수련원 등), ③ 비공식 소규모 동아리 (또래 친구들끼리 만든 모임), ④ 사이버 동아리 (PC 통신 등 사이버 공간에서 만들어진 모임), ⑤ 기타”의 보기 중 참여하고 있는 모든 동아리에 표기하게 하였다.

또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총 기간을 측정하기 위해 “학생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총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라고 질문하고, 이에 “① 6개월 이하, ② 6개월-1년, ③ 1년-1년 6개월, ④ 1년 6개월-2년 이하, ⑤ 2년 이상”중 해당하는 곳에 표기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주일 동안의 동아리 활동 횟수는 “동아리 활동은 1주일에 몇 회 정도 참여합니까?”라는 질문에 “① 1-2회, ② 3-4회, ③ 5-6회, ④ 7회 이상”의 보기 중 해당하는 번호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청소년 활동 :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참여경험”, “봉사활동 참여시간”, “가장 많이 참여한 봉사활동영역”, “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묻는 문항들로 측정하였다.

먼저 봉사활동 참여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학생은 지난 학기 동안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이에 “① 예, ② 아니요”중 선택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그리고 봉사활동 참여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지난 학기 동안 봉사활동에 참여한 총시간은?”이라는 질문을 하고 이에 봉사활동 참여시간을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또한 가장 많이 참여한 봉사활동 영역을 측정하기 위해 <표 II-3>의 활동영역 중 가장 많이 참여한 봉사활동영역을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표 II-3> 봉사활동 영역 및 활동 내용

활동 영역	활동 내용
①일손돕기 활동	복지시설, 공공시설, 병원, 농어촌, 학교내 일손돕기 등
②위문활동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병약자(무의탁노인, 병원환자 등)군부대 등 위문
③지도활동	사회교육, 교통·안전, 등·하급생 지도 등
④캠페인 활동	공공질서 확립, 교통안전, 학교주변 정화, 환경보전 등 캠페인 활동
⑤자선·구호활동	재해구호, 불우 이웃돕기, 국제협력과 난민구호 등
⑥환경·시설보존활동	깨끗한 환경 만들기, 문화재 보호, 자연보호 등
⑦지역사회개발활동	지역실태조사, 지역사회 가꾸기, 지역홍보 활동, 지역행사 지원 활동 등
⑧기타	위의 영역활동 내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활동 ※ 활동내용: _____

마지막으로 봉사 활동 참여 이유를 측정하기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골라 V표 하십시오”라고 질문하고 “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서, ② 내신 성적 반영 때문에, ③ 이웃이나 지역사회, 국가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 ④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⑤ 나 자신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⑥ 종교적 이유 때문에” 중 해당하는 번호에 표기하게 하였다.

청소년 활동 : 여가

여가를 측정하기 위해 “평일과 주말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 “여가를 함께 보내는 사람”, “평일과 주말에 주로하는 여가활동”, “신문 읽는 횟수”, “지난 일년간의 독서량”, “지난 일년간 영화/콘서트/연극/

음악회/전시회 관람 횟수”, “일주일 간의 운동 시간”, “하고있는 운동의 종류” 등 총 8개의 항목을 묻는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먼저, 평일과 주말의 평균 여가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평일과 주말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맞는 칸에 V표 하십시오.”라고 질문하고, 평일과 주말의 여가시간을 “① 1시간 미만, ② 1-2시간, ③ 3-4시간, ④ 5-6시간, ⑤ 7-8시간, ⑥ 9시간 이상”의 보기 중 각각 선택하여 해당하는 번호에 표기하게 하였다.

또한 여가를 함께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주로 누구와 함께 여가를 보냅니까?”라는 질문에 “① 혼자서, ② 이성친구, ③ 동성친구, ④ 선후배, ⑤ 부모님, ⑥ 기타”의 보기 중 선택하여 표기하게 하였다.

그리고 평일과 주말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평일과 주말의 여가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알맞은 활동을 하나만 골라 V표 하십시오”라고 질문한 후 “① TV 시청, 라디오 청취, ② 가족과 대화 및 놀이, ③ 독서(신문, 잡지, 소설 등), ④ 운동 참여 및 관람, ⑤ 만화가게, 전자오락실, 노래방, ⑥ 컴퓨터(PC 통신, 게임 등), ⑦ 아르바이트, 집안일 돕기, ⑧ 청소년 단체 활동(클럽 활동), ⑨ 종교 활동, ⑩ 사회봉사 활동, ⑪ 동성친구와의 교제, ⑫ 이성친구와의 교제, ⑬ 영화, 연극, 전시회, 음악활동, ⑭ 기타 활동”의 보기에서 평일과 주말의 여가활동을 각각 선택하여 표기하게 하였다.

신문을 읽는 횟수를 측정하기 위해 “신문을 얼마나 자주 읽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이에 “① 매일, ② 일주일에 4-6번, ③ 일주일에 1-3번, ④ 한 달에 2-3번, ⑤ 한 달에 1번, ⑥ 거의 읽지 않는다”라는 보기 중 해당하는 번호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난 1년간 독서량을 측정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총 몇 권의 책을 읽었습니까? (교과서, 참고서, 만화책 제외)”라고 질문하였으며, 이에 읽은 책의 수를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영화/콘서트/연극/음악회/전시회의 관람 횟수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몇 번이나 영화/콘서트/연극/음악회/전시회 등을 관람하였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영화, 콘서트, 연극, 음악회, 전시회 각각의 관람횟수를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일주일간의 운동시간은 “1주일에 몇 시간 정도의 운동을 합니까? (체육시간 제외)”라는 질문에 운동시간을 직접 기입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운동을 할 경우 하는 운동의 종류를 측정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합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다음의 보기 “① 농구, ② 축구, ③ 야구, ④ 배구, ⑤ 탁구, ⑥ 테니스, ⑦ 배드민턴, ⑧ 태권도, ⑨ 검도, ⑩ 수영, ⑪ 조깅, ⑫ 육상, ⑬ 인라인 스케이트, ⑭ 스케이트보드, ⑮ 자전거 타기, ⑯ 기타” 중 해당하는 운동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청소년 활동 : 용돈

용돈에 관한 내용들은 “용돈을 주는 사람”, “용돈 받는 횟수”, “1달 평균 받는 용돈”, “실제 사용하는 한달 용돈”, “용돈이 부족할 경우 용돈 조달방법”, “주요 용돈 사용처”, “휴대전화 소지 여부”, “한달 휴대전화 사용시간” 등 8개 항목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먼저 용돈을 주는 사람을 측정하기 위해 “용돈은 주로 누구한테 받으십니까?”라는 질문에 “① 부모, ② 형제자매, ③ 친척, ④ 할아버지, 할머니, ⑤ 본인(아르바이트), ⑥ 친구, ⑦ 기타”의 보기 중 선택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용돈을 받는 횟수를 측정하기 위해 “용돈은 어떤 형태로 받으니까?”라고 질문하였으며, 이에 “① 월 1회, ② 월 2회, ③ 월 3회, ④ 매주, ⑤ 매일, ⑥ 필요할 때마다”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표기하게 하였다.

또한 한달 평균 용돈을 측정하기 위해 “1달 평균 용돈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이에 직접 1달 평균 용돈을 기입하게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실제 1달 사용하는 용돈의 액수를 측정하기 위해 “실제 사용하는 1달 평균 용돈은 얼마입니까?”라고 질문하고, 이에 직접 사용용돈 액수를 기입하게 하였다.

그리고 용돈이 부족할 경우 용돈 조달 방법을 측정하기 위해 “용돈이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라고 질문하고, “① 친구에게 빌려 쓴다, ② 다음달 용돈을 미리 받아서 쓴다, ③ 저축한 돈을 꺼내 쓴다, ④ 다음 용돈을 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 ⑤ 용돈을 주시는 분에게 용돈을 더 줄 것을 요청한다, ⑥ 용돈이 부족한 경우가 없다, ⑦ 기타” 중 선택하게 하였다.

용돈의 주요 사용처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달 용돈은 주로 어느 용도로 사용하셨습니까? 주로 사용한 순서대로 3가지만 적으시오”라고 질문 하였으며 “① 간식(군것질), ② 외식, ③ 선물 구입비, ④ 책, 참고서 구입, ⑤ 학용품비, ⑥ 교통비, ⑦ 의복 구입비(옷, 신발, 가방, 장신구), ⑧ 술, 담배 구입, ⑨ 오락비(영화감상, 오락실, CD, 테이프), ⑩ 핸드폰 요금, ⑪ 기타”의 보기 중 주로 사용한 순서대로 기입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①예, ②아니오”중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게 하였으며,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을 경우 사용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1달 평균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이에 직접 사용 시간을 ‘분’ 단위로 기입하게 하였다

청소년 활동 :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는 “아르바이트 경험”,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 “아르

바이트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에 관한 항목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아르바이트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방과후나 방학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① 있다, ② 없다”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경험한 아르바이트의 종류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에서 학생이 경험한 아르바이트를 모두 표시하십시오”라고 진술하고, “① 주유소 주유원, ② 판매원, ③ 신문배달, ④ 음식점 서빙 또는 배달, ⑤ 전단지 배포 또는 스티커 붙이기, ⑥ 건설현장 노동 및 청소, ⑦ 아이 돌보기 또는 노인 시중들기, ⑧ 호객꾼(삐끼), ⑨ 컴퓨터와 관련된 일, ⑩ 사무보조, ⑪ 인형공장 또는 의류공장, ⑫ 이사짐 운반 또는 물건포장, ⑬ 엑스트라, 콜라텍 DJ, 나레이터 모델, ⑭ 기타”의 보기 중에서 경험한 모든 아르바이트를 표기하게 하였다.

또한 아르바이트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이에 “① 10시간 이하, ② 10-15시간, ③ 15-20시간, ④ 20-30시간, ⑤ 30시간 이상”중에서 선택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를 측정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① 생활비나 학비를 벌려고, ② 용돈이 필요해서, ③ 중요한 무언가를 꼭 사거나 쓸 곳이 생겨서, ④ 남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⑤ 진로선택에 도움을 받으려고, ⑥ 친구들의 권유로, ⑦ 친구들을 폭넓게 사귀고 싶어서, ⑧ 기타”의 보기 중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청소년활동 : 인터넷

인터넷은 “컴퓨터 소유여부”,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 사용 용도”, “인터넷 하는 장소”를 묻는 문항들로 측정하였다.

먼저 컴퓨터 소유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집에 컴퓨터가 있습니까

까?”라는 질문을 하고, 이에 “①있다, ②없다”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인터넷 사용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하루에 인터넷을 얼마나 사용합니까?”라고 질문하고, 이에 인터넷 사용시간을 분단위까지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용도는 무엇입니까? 많이 사용하는 순서대로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진술하고, “① 학습, ② 채팅, ③ 정보검색, ④ 커뮤니티 활동(동호회 활동), ⑤ 게임, ⑥ 기타”의 보기 중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된 용도의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 기입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하는 장소를 측정하기 위해 “인터넷을 주로 하는 장소는?”이라는 질문을 하고, 이에 “① 학교, ② 집, ③ PC방, ④ 친구 집, ⑤ 기타”의 보기 중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게 하였다.

진로 · 학교와 지역사회 : 진로

진로를 측정하기 위해 “부모님과 본인이 원하는 장래직업”, “진로선택에 대한 태도”, “부모가 원하는 장래의 학생의 교육수준”, “학생 자신이 원하는 장래의 교육수준”, “지각이나 결석 횟수”, “학교 성적”, “학교 수업을 제외한 하루 평균 학습시간”의 항목들의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먼저 부모님과 본인이 원하는 장래직업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님과 학생 본인이 원하는 학생의 장래 직업은?”이라는 질문을 하고, <표 II-4>에서 제시된 직업들 중 부모님과 학생 자신이 원하는 장래직업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란에 각각 표기하게 하였다.

<표 II-4> 직업의 종류

번호	직업
1	<u>전문 기술직 및 관련직</u> 과학자, 기술자, 교수, 의사, 약사, 간호사, 법관, 교사, 작가 언론인, 목사, 기자 등
2	<u>행정직 및 관리직</u> 고급 공무원, 국회의원, 기업 경영자 및 사업, 회사 간부 기타 고위관리직 종사자 등
3	<u>사무직 및 관련직</u> 일반 공무원, 경리사원, 은행원, 통신기사, 비서, 일반 회사원 등
4	<u>판매직</u> 자영업자, 외판원, 판매사, 중개업자, 증권 중개인 등
5	<u>서비스직</u> 관광 안내원, 조리사, 미용사, 요식숙박업소, 지배인 환경미화원, 택시기사, 가사 등
6	<u>농·임·축·수산업 및 관련직</u>
7	<u>생산 및 기타 관련직</u> 목수, 배관공, 금속가공 기술자, 전기 기술자, 인쇄 기술자 운전기사, 일반 노동자 등
8	<u>직업군인</u>
10	기타:

다음으로 진로선택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현재의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면 “예”란에, 일치하지 않으면 “아니오”란에 V표를 해주십시오”라고 진술한 후, <표 II-5>의 여섯가지 행위를 열거하고, 조사 대상자들의 동의 여부를 “① 예, ② 아니오”로 답하게 하였다.

<표 II-5> 진로선택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

번호	문항
1)	나는 진로결정이나 직업선택시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겠다
2)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지금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
3)	나는 나의 능력이나 조건에 가장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
4)	나는 여러 분야에 흥미가 있어서 나의 진로를 결정하기가 곤란하다
5)	진로선택이란 때가 되면 누구나 하는 것이므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
6)	나는 진로와 관련된 문제들은 내 스스로 해결할 것이다

부모가 원하는 장래의 학생의 교육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님이 원하는 학생의 장래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석사, ⑤ 대학원 박사” 중 부모가 조사대상자에게 원하는 교육수준을 선택하게 하였다.

또한 학생 자신이 원하는 장래의 교육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학생 자신이 원하는 학생의 장래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라고 질문한 후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석사, ⑤ 대학원 박사” 중 해당하는 교육수준을 선택하게 하였다.

그리고, 지각이나 결석 횟수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 1달 동안 지각이나 결석을 몇 번이나 하였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지각과 결석 횟수를 각각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또한 학교 성적은 “학교성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라는 질문에 “① 매우 못하는 편이다, ② 중간보다 못하는 편이다, ③ 중간 수준이다, ④ 중간보다 잘하는 편이다, ⑤ 매우 잘하는 편이다”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응답하게 함으로써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제외한 하루 평균 학습시간은 “학생은 학교 수업 이외에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교과공부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학습시간을 직업 기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진로·학교와 지역사회 : 사교육

사교육은 “학원/과외수업 유무”, “학원/과외수업 과목”, “과외 형태”, “과외수업 횟수”, “과외의 효과”, “과외수업이 학교공부 고민 해결에 주는 효과”의 항목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우선, 학원/과외수업 유무를 측정하기 위해 “학생은 현재 학원/과외수업을 받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으며, 이에 “① 받고 있다, ② 받고 있지 않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또한 학원 또는 과외수업을 받고 있을 경우, 학원/과외수업 과목을 측정하기 위해 “무슨 과목을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는 과목에 모두 V표 해 주십시오”라고 진술하고, “① 국어, ② 영어, ③ 수학, ④ 과학, ⑤ 사회탐구, ⑥ 음악, ⑦ 미술, ⑧ 체육, ⑨ 기타”중 해당하는 과목을 모두 선택하게 하였다.

과외형태를 측정하기 위해 “학생은 어떤 형태의 과외를 받고 있습니까?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과외형태 하나에만 V표하고 ()속에 함께 공부하는 학생 수(정원)를 써 주십시오”라고 질문하고 “① 개인교수(1명), ② 그룹과외(명), ③ 학원수강(명), ④ 학습지 과외, ⑤ 인터넷 과외, ⑥ 기타”의 보기 중 해당하는 한 가지에 표기하게 하였다.

또한 과외수업 횟수를 측정하기 위해 “학생은 과외수업을 1주일에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이에 일주일동안 과외 받는 일 수와 시간을 각각 기입하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생이 받았던 과외가 성적 향상이나 상급 학교 진학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

았다, ②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중 해당번호에 표기하게 함으로써 과외의 효과를 측정하였으며, 과외수업이 학교공부 고민 해결에 주는 효과는 “지금 하고 있는 과외수업이 학교 공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 위에 V표하십시오.”라고 진술한 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축적 정도에 따라 1에서 7까지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에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측정하였다.

진로·학교와 지역사회 : 학교 환경

학교환경은 “학교 환경에 대한 태도”, “학교주변 유해업소”, “유해업소 이용빈도”의 세 가지 항목의 문항들로 측정하였다.

먼저 학교 환경에 대한 태도는 “현재 학교환경은 어떠합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학교 환경과 관련된 <표Ⅲ-3>의 세 가지 문항을 열거하여 각 문항들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라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II-6> 학교 환경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

번호	문 항
1)	학교 위치는 등·하교 하기에 편리하다
2)	학교 시설은 생활하기에 편하다
3)	학교 주변 환경은 잘 정화되어 있다

또한 학교주변 유해 업소를 측정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서 다음과 같은 업소를 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표 II-7>에서 제시된 유해업소들 각각에 대한 발견 정도를 “① 전혀 없다, ② 보통이다, ③ 많은 편이다”라는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표 II-7> 유해업소 종류

번호	문	항
1	만화방	
2	전자오락실	
3	PC방	
4	노래방	
5	호프집, 소주방	
6	비디오 방	
7	카페	
8	락카페	
9	나이트 클럽(디스코 텍)	

마지막으로 유해업소 이용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들 업소를 학생은 얼마나 자주 이용합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표 II-7>에 제시된 유해업소 각각에 대한 이용 빈도를 “① 전혀 않는다, ② 한달에 1번, ③ 한달에 3-4번, ④ 일주일에 1번, ⑤ 일주일에 3-4번, ⑥ 거의 매일”이라는 척도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진로·학교와 지역사회 : 문제행동

문제행동은 “<표 II-8>에 제시된 문제행동의 빈도”, “가출 후 거주지”, “가출 후 행동”, “가출 후 생활비 조달 방법”, “흡연량”, “음주 빈도”, “음주 후 행동”, “성관계 대상”, “원조교제 경로”, “원조교제 동기”, “학교폭력 피해빈도”, “학교폭력 피해 후 신고 대상”, “학교폭력

피해 신고 효과”, “학교폭력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등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먼저 문제행동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당신은 다음의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표 II-8>에 열거된 문제 행동들의 빈도를 “① 전혀 없다, ② 아주 가끔, ③ 가끔, ④ 자주, ⑤ 매우 자주”라는 리커트 척도에서 답하도록 하였다.

<표 II-8> 문제행동 빈도

번호	문	항
1)	가출	
2)	무단 결석	
3)	담배 피우기	
4)	술마시기	
5)	본드, 가스, 신나 흡입	
6)	대마초, 엑스터시 등 마약 복용	
7)	성관계	
8)	성인용 음란매체 이용	

<표 II-8>에 제시된 문제행동들 중 가출경험이 있는 경우, “가출 후 거주지”, “가출 후 행동”, “가출 후 생활비 조달 방법”에 대한 항목들을 추가로 측정하였다. 이 중 가출 후 주거지를 측정하기 위해 “가출 후 잠을 잔 곳은 어디입니까?”라고 묻고, 이에 “① 친구 집, ② 여관, 여인숙, ③ 비디오방, 만화방, PC방 ④ 찜질방, 사우나, ⑤ 길거리, 빈집, 계단, ⑥ 아르바이트 하는 곳(주유소, 유흥업소 등), ⑦ 청소년 보호시설 ⑧기타”의 선택지 중에서 답하게 하였다.

또한 가출 후 주로 한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가출 후 주로 무엇을 하며 지냈습니까?”라고 질문하고 “① 그냥 친구들과 건전하게(비행하지 않고) 놀았다, ② 유흥업소 등을 드나들며 놀았다, ③ 무작정 떠

돌아 다녔다(여행 등), ④ 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지냈다, ⑤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경험을 쌓았다, ⑥ 성매매(원조교제)를 했다”의 보기 중에서 선택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출 후 생활비 조달 방법을 측정하기 위해 “가출 후 생활비는 주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이에 “① 집에서 훔쳐온 돈, ②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③ 친구, 선배의 도움으로 받는 돈, ④ 소매치기해서 훔친 돈, ⑤ 구걸을 통해 얻는 돈, ⑥ 집에서 모아둔 돈, ⑦ 기타”의 보기 중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게 하였다.

그리고, <표 II-8>에 제시된 문제행동들 중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 흡연량을 측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흡연량을 측정하기 위해 “일주일에 담배를 얼마나 피웁니까?”라고 질문하고 이에 일주일간 피우는 담배의 양을 “갑”단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또한 <표 II-8>에 제시된 문제행동들 중 음주경험이 있는 경우, 음주 빈도와 음주 후 행동을 추가로 측정하였다. 음주 빈도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라고 질문하고, 이에 “① 1달에 1-2번, ② 1주일에 1-2번, ③ 1주일에 3-4번, ④ 거의 매일”로 구성된 척도에 답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음주 후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술을 마신 후,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모두 표시하십시오)”라고 질문하고 “① 폭행이나 폭언 등 폭력행동 경험, ② 성관계를 갖은 경험, ③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 ④ 환각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경험, ⑤ 가출한 경험, ⑥ 외박한 경험”중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 그 대상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여 주된 성관계 대상이 누구인지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성관계 대상은 주로 누구입니까?”라고 질문하고, “① 이성친구, ② 아는 사람, ③ 가족이나 친척, ④ 우연히 만난 사람, ⑤ 성매수자(대가를 지불한 성인), ⑥ 기타”의 보기 중에서 답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매매(원조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성매매 경로와 성매매(원조교제)동기에 관한 문항을 추가로 질문하였다. 먼저 성매매 경로를 측정하기 위해서 “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 성매매를 경험하였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이에 “① 인터넷 채팅, ② 휴대폰 채팅, ③ 전화방, ④ 친구나 선후배 소개, ⑤ 유흥업소를 통해, ⑥ 부킹(거리,노래방,나이트 클럽), ⑦기타”의 보기 중에서 답하게 하였다. 성매매(원조교제)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를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① 친구의 권유, ② 사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한 돈이 필요해서, ③ 성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 ④ 당장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⑤ 부모에게 반항하기 위해서, ⑦ 기타”의 보기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문제행동 가해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당신은 다음의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하고 <표 II-9>에 열거한 문제행동을 행한 빈도를 “① 전혀 없다, ② 6개월에 1-2번, ③ 1개월에 1-2번, ④ 1주일에 1-2번, ⑤ 1주일에 3-4회 이상” 중에서 응답하게 하였다.

<표 II-9> 문제행동 가해빈도

번호	문 항
1)	다른 사람 폭행하기
2)	다른 사람에게 욕설이나 협박하기
3)	학교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4)	다른 사람의 돈, 물건 강제로 뺏기
5)	다른 사람의 돈, 물건 훔치기
6)	남의 집에 들어가 돈, 물건 훔치기
7)	다른 사람 물건 파괴
8)	학교나 다른 공공장소의 기물 파손
9)	흥기를 가지고 다니기

학교 폭력 피해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당신은 학교 친구로부터 다음의 행동을 얼마나 자주 당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하고 <표 II-10>에 열거된 행동들을 한 빈도를 “① 전혀 없다, ② 6개월에 1-2번, ③ 1개월에 1-2번, ④ 1주일에 1-2번, ⑤ 1주일에 3-4회 이상”으로 구성된 척도에 답하게 하였다.

<표 II-10> 학교폭력 빈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

번호	문 항
1)	학교 친구로부터 폭행 당하기
2)	학교 친구로부터 욕설이나 협박당하기
3)	학교 친구로부터 집단따돌림(왕따) 당하기
4)	학교 친구로부터 돈, 물건 강제로 빼앗기기

<표 II-10>에 열거된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학교 폭력 피해 후 신고한 대상과 신고 후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와 학교폭력 피해 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 등에 관해 추가로 측정하였다. 먼저 학교폭력 피해 후 신고 대상을 측정하기 위해 “학교에서 폭력(폭행, 협박, 왕따 등)을 당한 후 누구에게 알렸습니까?”라고 질문하고 “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음, ② 가족에게 알림, ③ 선생님에게 알림, ④ 친구에게 알림, ⑤ 상담실 등 전문기관에 알림, ⑥ 경찰에 신고, ⑦ 기타”의 보기 중에서 답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학교 폭력을 누군가에게 알렸을 경우 신고가 도움이 되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알린 후 도움이 되었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이에 대해 “① 많은 피해를 보았다, ② 조금 피해를 보았다, ③ 똑같았다,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⑤ 많은 도움이 되었다”중 하나에 응답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 피해 후 아무에게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측정하기 위해 “알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고 “① 알려봐야 소용없으니까, ② 알린 후 보복이 두려워서, ③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의 보기 중에서 답하게 하였다.

진로·학교와 지역사회 : 친구

친구와 관련된 내용은 “친한 동성친구 수”, “친한 동성친구를 사귀게 된 경위”, “친한 이성친구 수”, “친한 이성친구를 사귀게 된 경위”, “근신/정학/퇴학을 경험한 친구 수”, “경찰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친구 수”, “문제행동을 한 친구 수”, “친구들에 대한 태도”, “학교에 대한 태도” 등 모두 9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먼저 친한 동성친구 수를 측정하기 위해 “친하게 지내는 동성 친구는 몇 명입니까?”라고 질문하였으며, 이에 직접 친구 수를 기입하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친한 동성 친구를 사귀게 된 경위를 측정하기 위해 “어떻게 친한 동성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지 다음의 문항에서 모두 고르시오”라는 진술을 한 후, “① 학교, ② 이웃, ③ 공공장소(쇼핑센터, 음식점, 오락실 등), ④ 인터넷, ⑤ 운동, ⑥ 문화생활(공연, 연극 등), ⑦ 취미생활, ⑧ 가족 및 친지, ⑨ 종교생활, ⑩ 친구의 소개, ⑪ 기억나지 않는다, ⑫ 기타”의 보기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게 하였다.

또한 친한 이성친구 수를 측정하기 위해 “친하게 지내는 이성 친구는 몇 명입니까?”라고 질문하였으며, 이에 직접 친구 수를 기입하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친한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 경위를 측정하기 위해 “어떻게 친한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지 다음의 문항에서 모두 고르시오”라는 진술을 한 후, “① 학교, ② 이웃, ③ 공공장소(쇼핑센터, 음식점, 오락실 등), ④ 인터넷, ⑤ 운동, ⑥ 문화생활(공연, 연극 등), ⑦ 취미생활, ⑧ 가족 및 친지, ⑨ 종교생활, ⑩ 친구의 소개, ⑪ 기억나지 않는다, ⑫ 기타”의 보기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

게 하였다

그리고 친구들 중 근신/정학/퇴학을 경험한 친구 수, 경찰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친구 수를 측정하였다. 우선 전자를 위해 “친구들 중 학교로부터 근신, 정학 혹은 퇴학을 경험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라고 묻고 이에 대해 “① 없다, ② 1-2명, ③ 3-4명, ④ 5명 이상”의 보기에 답하게 하였으며, 후자를 측정하기 위해 “친구들 중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라고 질문하고 이에 “① 없다, ② 1-2명, ③ 3-4명, ④ 5명 이상”의 보기에 답하게 하였다.

친구들 중 문제행동을 한 친구의 비율을 측정하고자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행동을 한 친구는 당신의 친구들 가운데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표 II-11>에 열거된 문제행동들을 했던 친구들의 비율을 “① 없다, ② 1/4정도, ③ 반 정도, ④ 3/4정도, ⑤ 거의 다”의 보기 중에서 선택하게 하였다.

<표 II-11> 친구들의 문제행동

번호	문 항
1)	가출
2)	무단 결석
3)	담배 피우기
4)	술마시기
5)	본드, 가스, 신나 흡입
6)	대마초, 엑스터시 등 마약 복용
7)	성관계
8)	성인용 음란매체 이용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 대한 태도와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태도도 측정하였다. 먼저 친구들에 대한 태도는 “당신은 당신의 친한 친구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라고 질문한 후 <표 II-12>의 5가지 문항을 진술한 후, 이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동의의 정도를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라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II-12> 친구들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

번호	문항
1)	친구들과 평생 동안 친구가 되고 싶다
2)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3)	나는 친구들을 신뢰할 수 있다
4)	내가 도움을 청하면 친구들은 나를 도울 것이다
5)	나는 친구들을 우정보다는 필요 때문에 만난다

마찬가지로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당신은 당신의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라고 질문하고, “<표 II-13>의 3가지 문항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동의의 정도를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II-13> 학교선생님들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

번호	문항
1)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애쓰신다
2)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3)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신다

진로·학교와 지역사회 : 학교생활

학교 생활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현재의 자신을 가장 잘 나

타내 주는 번호에 V표를 해주십시오”라고 진술하고 <표 II-14>에서 열거하고 있는 문항들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동의 정도를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에 답하게 하였다.

<표 II-14>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

번 호	문 항
1)	나는 내가 공부한 만큼의 성적을 얻지 못한다
2)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친구가 많지 않다
3)	나는 현재 나의 학업 수행에 만족한다
4)	요즈음 나는 늘 피곤하다
5)	나는 학교에서 급우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교성이 충분하다고 느낀다
6)	나는 학교 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7)	나는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과 편안히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8)	요즈음 나는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9)	나는 요즈음 학교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10)	요즈음 나는 우울하고 언짢다
11)	나는 요즈음 숙제를 시작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	나는 요즈음 두통이 심하다
13)	나는 지금까지 학교 공부를 잘 따라가고 있다
14)	나는 최근 긴장해 있으며 신경 과민이다
15)	나는 학급의 한 일원으로 잘 어울린다고 느낀다
16)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할 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않다
17)	나는 학교 상담소나 정신과 의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자아관과 인생관 : 자아관

개인의 자아관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항목은 크게 네 가지이다. 그 하나가 “자아존중감”이고, 둘째, “자기효능감”, 셋째, “공격성”, 마지막이 “자기조절감”이다.

먼저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현재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번호에 V표를 해주십시오”라는 진술을 제시하고, <표 II-15>의 문항들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동의 정도를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라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답하게 하였다.

<표 II-15>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번호	문항
1)	나는 대체로 내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2)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3)	나는 나의 키와 몸무게에 만족한다
4)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	나는 내가 잘 생겼다(예쁘다)고 생각한다
6)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7)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	내 얼굴이나 머리카락 등이 지금과 달랐으면 하고 바란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현재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번호에 V표를 해주십시오”라는 진술을 제시하고 <표 II-16>에 열거된 문항들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이 느끼는 동의의 정도를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표 II-16>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번호	문항
1)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2)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3)	나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 할 자신이 없다
4)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5)	나는 내 삶의 여러 도전들을 잘 처리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항목인 공격성 또한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현재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번호에 V표를 해주십시오”라는 진술을 제시하고, <표 II-17>에 열거된 문항들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이 느끼는 동의의 정도를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표 II-17>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번호	문항
1)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2)	나는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면 격분한다
3)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4)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5)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6)	나는 몹시 화가 나서 책상을 “탕”하고 내리친 적이 있다
7)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8)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자기조절감을 측정하기 위해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현재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번호에 V표를 해주십시오”라는 진술을 하고 <표 II-18>에 제시된 문항들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II-18> 자기조절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번호	문항
1)	친구가 선생님께 칭찬을 받고 좋아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2)	나는 괴로울 때에도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3)	나는 기분 나쁜 일을 빨리 잊으려고 애쓰는 편이다
4)	나는 친구도 없이 외톨이로 혼자 다니는 아이를 보면 불쌍하게 느껴진다
5)	나는 화가 나면 화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한다
6)	나는 일이 잘 안되어도 실망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7)	엄마나 친구의 기분이 나쁘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진다
8)	나는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즐거워 질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생각한다
9)	나는 육교나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다

자아관과 인생관 : 인생관과 고민

인생관과 고민에 관해서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 “고민의 주제”, “고민 의논 대상”,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등 총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먼저 인생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은 당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라고 질문하고 <표 II-19>에 열거된 문항들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약간 중요하다, ④ 매우 중요하다”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에 답하게 하였다.

<표 II-19>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측정하기 위한 문항

번호	문항
1)	돈을 많이 버는 것
2)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획득하는 것
3)	결혼하는 것
4)	자식을 갖는 것
5)	자기가 종사하는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
6)	원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
7)	자식들에게 보다 나은 장래를 제공하는 것
8)	나이 드신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것
9)	남을 위해 헌신하거나 봉사하는 것

또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당신은 다음의 문제로 얼마나 고민하십니까?”라고 질문하고 <표 II-20>에 열거된 문제들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고민의 정도를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가끔 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 한다, ⑤ 항상 한다”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II-20> 고민의 주제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

번호	문항
1)	건강
2)	용모·체격
3)	학업성적·진학
4)	이성교제
5)	친구관계
6)	음주/흡연
7)	학원폭력
8)	가정불화
9)	가정빈곤
10)	성격
11)	가치관/인생관
12)	사회문제

이와 더불어 고민이 생겼을 때 의논 대상이 누구인지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고민이 생겼을 때 주로 의논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만 선택)”라고 질문하고, 이에 대해 “① 부모, ② 친구, ③ 형제자매, ④ 할머니, 할아버지, ⑤ 친척, ⑥ 학교교사, ⑦ 상담교사, ⑧ 신경정신과 의사, ⑨ 의논하지 않는다, ⑩ 기타”의 보기 중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표 II-21>에 열거한 생활 영역에 만족하는 정도를 “① 매우 불만, ② 불만, ③ 만족, ④ 매우 만족”으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II-21>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

번 호	문 항
1)	전체적인 삶
2)	친구 관계
3)	학교 생활
4)	가정 생활
5)	지역 사회

부모 문항 : 부모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부모에 관한 문항은 크게 “부모나이”, “부모직업”, “부모 종교”, “부모 학력”, “아버지의 흡연 여부”, “아버지의 음주빈도”, “아버지의 음주 후 문제행동 유무” 등 크게 일곱 개 항목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먼저 부모님의 나이를 측정하기 위해 “부모님의 나이는?”이라는 질문을 하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나이를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또한 부모님의 직업은 “부모님의 현재 직업은?”이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표 II-22>에 제시된 직업들 중 부모님의 직업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칸에 각각 표기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표 II-22> 직업의 종류

번호	직업
1	전문 기술직 및 관련직 과학자, 기술자, 교수, 의사, 약사, 간호사, 법관, 교사, 작가 언론인, 목사, 기자 등
2	행정직 및 관리직 고급 공무원, 국회의원, 기업 경영자 및 사업, 회사 간부 기타 고위 관리직 종사자 등
3	사무직 및 관련직 일반 공무원, 경리 사원, 은행원, 통신 기사, 비서 일반 회사원 등
4	판매직 자영업자, 외판원, 판매사, 중개업자, 증권 중개인 등
5	서비스직 관광 안내원, 조리사, 미용사, 요식숙박업소, 지배인 환경미화원, 택시기사, 가사 등
6	농·임·축·수산업 및 관련직
7	생산 및 기타 관련직 목수, 배관공, 금속가공 기술자, 전기 기술자, 인쇄 기술자 운전기사, 일반 노무자 등
8	직업군인
9	무직
10	기타: _____

부모의 종교를 측정하기 위해 “부모님의 종교는?”이라고 질문하고 이에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원불교, ⑥ 천도교, ⑦ 무교, ⑧ 기타”중 아버지와 어머니의 종교에 해당하는 곳에 각각 표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모님의 학력은 “부모님의 학력은?”이라는 질문을 하고 이에 “① 무학, ② 초등졸·중퇴, ③ 중졸·중퇴, ④ 고졸·중퇴, ⑤ 대졸·중퇴, ⑥ 석사, ⑦ 박사”의 보기 중 해당번호를 선택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아버지의 흡연량을 측정하기 위해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십니까?”이라고 질문하고 아버지의 흡연 정도를 “① 전혀 안 피우신다, ② 조금 피우신다, ③ 보통이다, ④ 많이 피우시는 편이다, ⑤ 매우 많이 피우신다”의 보기 중에서 답하게 하였다.

아버지의 음주량 또한 “아버지는 자주 술을 드십니까?”라고 질문하고 이에 “① 전혀 안 드신다, ② 가끔 드신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 드시는 편이다, ⑤ 매우 자주 드신다”의 보기 중에서 선택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음주로 인한 문제행동 유무는 “아버지는 술로 인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① 있다, ② 없다”중에서 선택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부모 문항 : 양육행동

양육행동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그 하나가 “부모의 양육 태도”이고, 다음이 “부모님과의 말다툼 빈도”이며, 마지막이 “부모님 관계”이다.

그 중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는 “다음의 문항들을 신중하게 읽으신 후 현재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진술을 제시한 후, <표 II-23>에 열거된 문항들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동의의 정도를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라는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표 II-23> 부모의 양육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

번호	문항
1	나는 부모님과 정서적으로 가깝다
2	내게 곤란한 일이 생기면 부모님은 이를 함께 걱정해 주신다
3	부모님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신다
4	부모님은 나에게 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
5	기분이 언짢을 때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다
6	부모님은 내가 내린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내 결정을 바꾸도록 나에게 압력을 가하신다
7	부모님은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내게 조언하신다
8	부모님은 화가 나면 내게 자주 화풀이를 하신다
9	부모님은 내가 부모님의 충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10	부모님은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신다
11	부모님은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신다
12	부모님은 부모님이 바라는 행동을 하도록 나를 때리거나 위협하신다
13	부모님은 내가 집밖에 나가 있으면 있는 곳을 알리라고 하신다
14	부모님은 내가 밖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계신다
15	부모님은 내가 방과후에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신다
16	부모님은 내가 밖에 나가 귀가시간이 늦어질 경우 집에 꼭 전화하라고 하신다
17	부모님은 될 수 있으면 나의 감정을 건드리기 싫어서 내버려 두시는 편이다
18	부모님은 하면 안 되는 일도 내가 조르면 그냥 하게 놔두신다
19	부모님은 내가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냥 모른 척 해버리시는 때가 많으시다
20	부모님은 내가 간혹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신다
21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 도대체 상관을 안 하시는 편이다
22	나는 부모님께 나의 생각을 주저 없이 의논한다
23	부모님은 항상 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신다
24	부모님은 나의 입장을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신다
25	나는 부모님과 어떤 문제를 의논하기가 편하다
26	나는 부모님께 나의 모든 진실한 감정을 잘 표현한다

또한 부모님과과의 말다툼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당신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자주 부모님과 말다툼을 하였습니까?”라고 질문 한 후, <표 II-24>에 제시된 문제들 각각에 대한 말다툼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2번 이하, ③ 한 달에 3-4번, ④ 일주일에 1-2번, ⑤ 일주일에 3-4번 거의 매일, ⑥ 거의 매일”중에서 선택하게 하였다.

<표 II-24> 부모님과과의 말다툼 빈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

번 호	문 항
1	학교(학업)문제
2	동성친구 문제
3	이성친구 문제
4	의복/머리 스타일
5	귀가시간
6	컴퓨터 사용
7	용돈문제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문항들을 신중하게 읽으신 후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칸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진술하고, <표 II-25>에 열거된 문항들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생각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라는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II-25> 부모님들 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

번호	문 항
1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이가 좋으시다
2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리신다
3	아버지와 어머니는 싸우신다
4	아버지와 어머니는 화가 나서서 서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다

패널 협조사항 및 면접 후 기록

향후 패널조사에 관한 협조와 관련한 조사대상자들의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향후 설문조사에 관한 지속적인 협조 의향”, “받고 싶은 보답 선물”에 관해 질문하였다.

그 중 향후 설문조사에 관한 지속적인 협조 의향을 측정하기 위해 “당신을 대상으로 만약 이러한 설문조사를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조사한다면 여기에 응하실 의향이 있습니까?”라고 묻고, 이에 “① 예, ② 아니오”중 선택하여 답하게 하였으며, 응할 의향이 없다고 한 경우를 대상으로 “만일 조사에 대한 보답을 준다면 설문에 응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추가 질문에 “① 예, ② 아니오”로 답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보답 유무에 따른 협조 의향을 측정하였다.

또한 받고 싶은 보답선물이 무엇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일 당신이 이와 같은 조사에 대한 보답으로 선물을 받는다면 다음 중 어떠한 것을 받고 싶은지 받고 싶은 순서대로 세 가지만 적어주십시오.”라고 진술하고 “① 소액 상품권, ② 문화 상품권, ③ 현금, ④ 추첨을 통한 장학금 지급, ⑤ 행운권, ⑥ 경품 추첨, ⑦ 기타”등의 보기 중에서 조사대상자가 원하는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하여 기입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설문 조사가 끝난 후 원활한 패널 관리를 위해 응답자의 이름과 응답자 부모님의 거주주소, 부모님 집 전화번호, 부모님 휴대전화번호와 직접 조사에 임한 조사원의 성명과 아이디를 기입하는 난을 추가하였다.

현재 설문구성의 상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 여러 가지 진행상의 사정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진행된 감이 없지 않아, 불충분하게 구성된 상태이다. 따라서, 설문 구성의 인식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며, 설문 구성의 논리적 구조가 불완전하며, 종단적 연구에 불필요한 설문문항도 눈에 많이 띄며,

설문지의 분량도 많은 편이다. 현재, 앞에서 제시한 설문구성의 여러 원칙들에 입각해 볼 때 인식목적의 설정, 설문구성의 거시구조의 논리성의 부여, 미시적인 부분인 변수와 척도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을 더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다. 향후의 면밀한 검토 작업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최종 설문지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다.

3. 연구방법의 검토

청소년 패널조사의 경우처럼 종단적인 양적 연구에서 표집은 양적 연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사설계의 기본적인 방법은 의사패널설계인 트렌드 스터디나 회고적 패널설계가 아니라 전망적 패널설계(prospective panel design)이다.

전망적 패널설계에는 대체샘플링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패널설계와 대체샘플링을 전제로 한 패널설계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대체샘플링을 하지 않는 패널 설계의 방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본의 상실이 발생할 경우 표본을 대체하지 않는 설계이며, 조사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표본의 상실률이 증가해, 최초설계로부터의 대표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대체샘플링을 전제로 한 두 번째 패널설계의 방법은 대체샘플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조사설계가 지닌 대표성 훼손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의 경과와 함께 발생하는 피험자의 상실률을 유사한 조건을 가진 다른 표본으로 대체 충원하는 경우이다. 이 방법은 대체샘플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볼 때, 상대적으로 애초 조사설계의 표본규모의 유지나 대표성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애초의 표본규모나 대표성을 진정으로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표성의 측면에서 첫 번째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또한, 표본의 상실률이 예상외로 큰 경우, 대체 샘플링을 전제로 한 패널설계방법은 결과적으로 경향조사(trend study)와 유사하게 되어, 패널 설계의 기본적인 특성을 살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실제로 상당수의 패널조사설계는 대체샘플링을 전제로 하지 않은 첫 번째의 패널설계의 방법을 근간으로 하며, 대체샘플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방법이 지닌 단점인 표본의 상실률에 따른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초 표집설계시에 과대표집(oversampling)을 하거나, 아니면, 과대표집을 하지 않고, 표본의 상실률을 최소화시킨 후에 종단적, 횡단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특히, 과대표집을 사용하여 표집설계를 할 때에는 표집설계의 복잡성과 비용의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실제로는 과대표집을 하지 않고, 조사진행과정에서 표본의 상실률을 최소화시킨 후에, 가중치로써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최초의 표집이 중요하며, 종단적 연구의 최초의 표집설계시에 주로 사용되는 원칙은 대표성, 일반화의 가능성, 추적의 용이성, 예산의 제약에 대한 고려 등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검토하고 있는 표집방법은, 학교 학급 단위의 집락표집, 가구단위의 집락표집, 소규모 지역 전수조사의 세가지가 있다.

우선, 학교 학급단위의 집락 표집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급단위의 학교 표집은 다단계 층화집락표집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적용하여, 1단계로 학교를 기본 집락단위로 삼고, 교급과 학년(초5/ 초6/ 중1/ 중2/ 중3/ 일반고1/ 일반고2/ 실업고1/ 실업고2, 모두 9개의 층), 도시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3개의 층), 권역(중부/ 서남부/ 동남부, 모두 3개의 층)등을 기준으로 층화를 한 후, 규모비례 확률표집법(PPS, probability

proportionate to size sampling)을 적용하여, 일정수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실업고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 2단계로 각 학교별로 해당 학년의 1개반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다음 3단계로 추출된 반의 학생 모두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조사방법으로는 원칙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질문하고 응답을 면접원이 면접지에 기록하는 개별면접의 면접단계식 방법을 지향하나, 현실적으로는 학급을 방문하여 질문지를 나눠주고, 자기보고식(self-reported)으로 기입하게 하는 집단면접의 방법을 취하게 된다.

학교 학급단위의 집락표집은 우선, 한 명씩 개별면접을 하는 게 아니라, 한 학급의 학생들 모두를 집단면접하므로 초기 패널 구축시 대상자 선정이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 학급의 학생들 모두를 한꺼번에 집단면접하는 것이, 일년차 조사에서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될 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지역(통, 반 등의 가구)을 집락단위로 개별 면접하는 경우보다, 2-5년차에는 조사비용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2년차 이후부터는 표집된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른 반으로 흩어지고 또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 혹은 취업과 함께 뿔뿔이 개인적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패널들을 추적하고 관리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때, 전화조사는 설문지의 분량상 어려운 점이 많고, 우편조사는 회수율이 보통 20-40%에 지나지 않으므로, 특히 종단적 패널조사에서는 금기시되는 방법이며, 불성실한 응답 등 비표집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메일 조사도 우편조사와 마찬가지로 회수율과 대표성에 우려되는 바가 많고, 유일한 방법이 개인면접뿐인데, 2-5년차의 개인면접시에, 조사대상 한 학급의 학생들이 지역(동, 반 등의 가구)을 단위로 하는 집락표집의 경우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 산개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관리 및 조사비용이 훨씬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모집단이 청소년이므로 표본의 대표성에도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면, 군 단위까지 소재하지 않고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학급단위의 집락표집의 경우 모집단인 청소년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 또한, 학교조직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학교조직이외의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우리나라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비율이 전체 학생들의 2%에 못미치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조직에 속해 있지만, 특정 내용의 조사인 경우,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청소년 일탈이나 비행일 경우, 학교조직만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국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결손가정과 청소년 일탈이나 비행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학교조직만을 모집단으로 한 표본조사 방법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엄밀하게 보면, 층화표집(층화집락표집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기본적인 관점이 소규모 표본으로 대규모 표본조사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연구주체에 맞게 모집단을 여러 개의 이질적인(내부적으로는 동질적인) 층으로 분할하는 데 있으므로, 학교, 학년, 학급만을 기준으로 층화하는 것이 연구주체에 부합되는 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

또한, 집락표집에서는 개인이 표집될 확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락이 표집될 확률을 바탕으로 하는데, 집락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학교의 학급과 같은 단위일 경우, 한국사회에서 학급이 배치되는 원리를 보면, 그것이 집락의 단위가 동이나 반과 같은 지역(가구)일 경우에 비해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집단면접을 할 경우에 응답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집단 면접조사는 개인 면접조사(personal interview or face-to face interview)의 경우처럼 훈련된 면접자가 응답자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면접하고, 응답을 직접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질문지를 교부해서 응답자가 직접 기재하게 하는 자기보고식 조사이다. 따라서, 질문이 개인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거나, 일탈행위등 사적인 질문일 때, 집단상황이 응답을 왜곡시켜 비표집오차(non-sampling error)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응답자들에 대한 통제가 개인 면접보다 용이하지 않아,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면접을 하는 경우에 응답자들에 대한 통제문제는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게다가, 본 연구의 1차년도 조사 데이터가 2-5년차 조사 데이터와 연동되는 점을 고려하고, 2-5년차 이후의 조사부터는 개별면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1년차의 집단면접시의 비표집오차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현재의 방법을 고수할 경우, 집단면접 방법의 신뢰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30개로 되어 있는 학급당 표본수를 줄이고, 학급수와 학교수를 늘려서, 집단면접이 아니라 개인면접의 방법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학년도 줄여서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일반고 1, 2학년, 실업고 1, 2학년을 다 추적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생의 두 패널만을 추적조사하여 학년별 샘플 수를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학교 학급단위의 집락표집이 갖고 있는 대표성과 신뢰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학교조직 단위의 집락표집이 아니라, 지역(통, 반)과 가구 단위의 집락표집과 개별면접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사회와 같은 전국적인 단위를 대상으로 가구 단위의 표본조사를 행하는 경우의 표집방법으로는 다단계 층화 집락표집방법이 주로 쓰인다.(주지하듯이, 집락표집방법은 기존의 다른 방법과는 달리 표집의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집락이므로, 집락단위의 크기가 매우 다른

경우에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크기가 다른 집락단위를 “단순임의추출”하는 대신 “집락의 크기에 비례하는 확률(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PPS)”의 방법으로 집락단위를 추출하는 규모비례 확률추출법(PPS)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대규모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기가 번거로운 단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정교하게 사용되는 가구 단위의 다단계 층화 집락표집의 방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마지막 최종단계 집락의 단위로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의 경우는 반, 군의 경우는 리를 정하고, 다음으로, 집락 하나의 크기(반, 리=보통 10샘플 정도)를 정한 다음, 총 목표표본수(예를 들면, 3,000샘플)를 집락 하나의 크기로 나눠, 추출해야 할 집락의 전체 갯수($3,000/10=300$ 집락)를 정한다.

둘째, 추출해야 할 집락의 전체 갯수(300집락)를, 인구센서스 자료에 나타난 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의 시부와 군부의 인구비례로 할당한다.

셋째, 특별시, 광역시, 각 도의 시부의 경우에는 할당된 집락수만큼 동(구는 무시)을 계통추출하고, 각 도의 군부에는 할당된 집락수만큼 읍, 면을 계통추출한 다음, 면접자에게 배부한다.

넷째, 면접자들로 하여금 추출된 동(읍면) 사무소에 가서 그 동의 전체 통(리) 리스트를 파악한 후, 특정 통의 특정 반(예를 들면, 3통 3반)이나 특정 리(예를 들면, 가운데 리)를 하나 선정하도록 한다.

다섯째, 다음으로, 면접자들로 하여금 선정된 특정 반이나 특정 리의 가구주 명단을 동회, 면사무소, 통장, 반장, 또는 이상등을 통해 입수하도록 하고, 그 명단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한다. 일련번호가 붙은 명단이 작성되었으면, 애초에 정한 조사 샘플 수(10샘플)만큼 계통적

으로 추출하여, 각 가구당 1명씩을 추출 조사한다. 우리의 경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령층의 청소년만을 추출, 조사한다.

이러한 방법은, 조사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단점이 있다. 우선, 조사하고자 하는 집락의 수가 300개가 넘어, 300개의 구분된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또, 넷째와 다섯째 부분에서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조사시간의 과다상계로 인한 비용상승의 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조사비용이 많이 들 우려가 있다. 그러나, 가구 단위 표집은 초기 패널 구축단계에서는 학교 단위 표집보다 비용이 좀 더 들지 모르겠지만 패널 이동에 따른 추적이 학교 단위 표집보다 용이하여 패널의 유지 및 관리가 훨씬 쉽고, 조사가 진행될수록 학교 단위 표집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가구단위의 표집도 학교 학급 단위의 표집과 마찬가지로 집락표집이므로, 집락이 표집될 확률을 중심으로 집락을 표집하는 것이지, 개인이 표집될 확률을 대상으로 표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대상인 청소년 개인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엄밀한 의미에서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가구단위의 표집은 학교 학급 단위의 표집보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추적조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패널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의 측면을 포기한다면, 다른 제 3의 표집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즉, 학교 학급단위의 집락표집이나 가구단위의 집락표집이 갖는 장점인 일반화를 포기하고, 사례연구로써, 작은 소규모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인 청소년을 전수조사하는 패널연구나 그 지역의 특정 연령층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출생코호트 스터디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예를 들면 “면목3동의 초등학교 5학년생 모두”를 조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조사방법의 경우에는 비용이 적게 들고, 추적조사가 용이한 장점

이 있으나, 한국의 청소년에 대한 정책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화 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꺼려지는 단점도 또한 아울러 존재한다.

이 조사방법의 단점인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아쉬움을 채울려면, 가구 단위의 집락표집을 원용하여, 도시규모별, 권역별로 지역을 몇 개의 층으로 층화한 후, 각 층별로 아주 작은 소규모 지역(통, 반, 읍, 면 등)을 몇 개 추출해 그 지역의 청소년 전체(소규모 표본)를 전수 추적 조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일 수 있다. 편법이긴 하지만, 사례연구가 갖는 장점에 일반화가능성을 더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표집방법은 현재 이러한 안들을 대상으로 계속 검토 중에 있다. 내년 상반기 조사시작 전까지 연구의 내용이나 설문지의 구성내용, 설문지의 개수, 설문지의 분량등이 선정되면, 각 표집방법의 장단점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표집방법을 선정하게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조사방법에서 샘플의 규모나 지역(예를 들면, 서울 시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전국 규모의 조사를 할 것인지)의 규모에 대한 문제는 예산 확보의 규모에 달려 있으므로, 우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갖고, 예산에 맞게 샘플의 규모나 지역규모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내년도의 예산규모가 정확히 산출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샘플의 규모나 지역의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 없는 시점이다.

4. 표본관리 방안의 검토

패널조사는 1차년도 조사에서 표본추출이 한번 이뤄지고 나면, 패널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추출된 표본을 변경, 대체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패널조사의 특성상 응답거절과 같은 표본의 이탈은 조사자료의 대표성에도 상당한 훼손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본의 이탈율이 최소

화되도록 추출된 표본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표본의 관리는 응답거절과 같은 표본 탈락외에도 불성실한 응답, 무응답 등과 같은 퇴행행위(Withdrawl Behavior)등 표본의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의 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패널 구성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 및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외부 리서치 회사에 관리를 위탁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서 있어야 한다.

표본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자인 응답자의 관리방안이 필요한데,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된 패널연구의 응답자 관리방안을 정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김해동 외, 2001; 한국노동연구원, 2002)

첫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응답자에게 미리 조사의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하는 우편물을 발송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패널조사 명예위촉장을 수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 하다.

둘째, 설문조사시에, 개인의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은 물론, 가족, 친척, 친구의 거주지 주소와 전화번호, 전자메일 등을 확보하여, 연락이 두절된다든가 등의 문제 발생시에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설문조사 후에, 설문에 응해 준 것에 대한 감사표시의 감사편지나 감사 이메일을 보낸다.

넷째, 설문조사시 약속한 응답자가 약속을 어길 경우, “Sorry, I miss You”카드와 같은 연락메모를 남긴다.

다섯째, 설문조사시 응답자가 응답을 거절할 경우, 응답 거절자를 설득하기 위한 편지를 발송한다.

여섯째, 평소에, 응답자와의 우호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일카드나 연하장, 달력을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한다.

일곱째, 평소에, 응답자와의 우호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원의 뉴스레터나 발간물을 배포한다.

여덟째, 평소에, 응답자와의 우호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한편, 표본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응답자의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면접원의 관리이다. 면접원은 응답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응답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접원의 교육과 관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한국노동연구원, 2002)

첫째, 패널조사는 일반면접에 비해 면접원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고 많으므로, 일반면접시의 면접비용에 비해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둘째, 면접원이 중도에 그만두어, 응답자가 새로운 면접원과 면접하게 되는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접원 채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면접원 교육시에 응답자와의 우호적인 관계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를 강조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한편, 표본의 이탈방지를 위해서, 설문지 분량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과다한 분량의 설문지는 장시간의 설문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결국 표본의 이탈방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1차년도 조사에서 표집설계된 표본의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거절당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샘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체샘플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일차년도의 원표본 성공률은 원표본 5,000가구 중 3,773가구로 75.3%의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성실하거나 불충분한 응답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후에 전화조사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패널조사 연구의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이탈율을 최소화한 후, 추후에 횡단적, 종단적 가중치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5. 실사방안의 검토

패널조사의 실사는 일반 횡단적인 조사와는 달리, 동일한 표본을 오랜 기간동안 추적하여 조사하여야 하므로, 기본적인 실사업무도 복잡하고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거의 만 명에 이르는 응답자와 수백명에 이르는 면접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질적으로 복잡하고 양적으로 방대한 내용의 특성을 갖는 일이다.

그리고, 성공적인 실사여부는 표본의 대표성 유지와 신뢰도 유지의 측면에서 패널조사 전반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패널조사의 실시는 개발원 자체내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외부리서치 회사에 용역위탁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외부 리서치 회사에 용역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사업체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패널조사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역량이 있는 조사회사의 선정이 패널조사 성공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현재, 한국의 리서치 회사들 중 제대로 된 패널조사 경험이 있는 회사는 한 두개에 불과한 실정이며, 나머지 회사들은 전국적인 실사조직망이 약하고 패널조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물론 외부 리서치 회사에 실사를 용역 위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초기단계부터 개발원에서 외부 리서치 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됨은 자명하다. (한국노동연구원, 2002)

예산 상의 제약 등으로, 개발원에서 실사부분을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응답자, 면접원, 실사부분을 전담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 조사는 일회성 조사가 아니므로 표본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표본의 관리업무는 용역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조사관련 서류(조사표 포함) 일체를 연구기관에서 직접 관리하고, 다음 조사 때 활용하여야 한다. 다음 조사를 맡은 용역기관이 이전의 리서치회사와 동일하다고 해도 동일한 방식의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

6. 예비조사의 실시

현재, 설문지의 구성이 완성된 단계가 아니고, 초안작성 단계이지만, 설문지 완성도 이외의 다른 문제, 설문지 분량문제의 점검, 설문 응답시간에 대한 점검, 피험자 주관적 응답에 의한 응답지속여부와 주관적 표본상실률에 대한 점검, 항목별 무응답률에 대한 점검, 횡단적 가중치에 대한 추정과 점검, 변수구성에 의한 표집편포의 점검, 척도구성방식에 의한 표집편포의 점검 등의 사항들을 검토하여 최종설문지의 완성도 제고를 기하기 위해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의 실시는 2002년 12월 11일 - 18일 동안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 1학생 100명(남 50, 여 50), 고 1학생 100명(남50, 여 50)명, 총 200명을 대상으로 개인 면접 타계식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외부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Ⅲ. 연구진행상의 문제와 과제

1. 연구추진과정상의 문제
2. 설문구성의 문제
3. 연령 설정의 문제
4. 조사시점의 선정 문제
5. 한정된 예산과 표집방법의 선정 문제

III. 연구진행상의 문제와 과제

1. 연구추진과정상의 문제

본 연구에서 올해 연구를 진행, 추진하는 과정에서 순전히 연구추진과정과 관련하여 발생했던 문제는 연구책임자의 잦은 교체, 연구계획서의 미비, 부적절한 외부 연구진의 활용, 기타 등등의 문제이다.

우선, 올해 본 패널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연구책임자가 이전직 등의 정당한 개인적인 사유로 세 번이나 바뀌는 과정을 겪었다. 패널 연구의 추진과정에서 연구 책임자의 잦은 교체는 새로운 연구진이 구성되고 새롭게 연구를 준비하는 기간만큼 연구의 추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제한된 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의 비효율적인 낭비는 전체 연구추진과정상의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원활한 연구추진을 불가능하게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 추진시에는 연구책임자의 유고시 연구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 연구책임자를 주책임자 1명과 부책임자 1명(혹은 책임급 공동연구원 1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투톱체제는 까다로운 종단적 연구과정의 의사결정의 매 순간에 신중성과 정확성을 기하게 만드는 다른 장점도 있다. 물론, 기타 내부 연구진의 효율적인 구성도 연구의 성공적인 추진에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는 연구계획서의 미비문제이다. 패널연구는 기본적으로 종단적 연구로써 횡단적 연구에 비해 연구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을 요하는 순간이 훨씬 많은 연구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에 연구를 차질없이 충실하게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충실한 연구계획서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충실하게 준비되고 미리 마련된 연구계획이 없이는 엄청난

시행착오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곧바로 연구추진의 오류 혹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짙다. 따라서, 향후 연구추진시에는 미리 충분히 준비된 충실한 연구계획서의 마련이 전제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는 부적절한 외부 연구진의 활용이다. 미리 충분히 준비된 연구계획서가 연구의 낭비와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듯이, 제한된 내부 연구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외부 연구진의 도움을 받을 때도 적절한 외부 연구진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적절하지 않은 외부 연구인력의 활용은 오히려 연구 추진과정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향후 외부 연구진의 활용은 패널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경험이 충분한 사람, 양적 연구방법에 밝은 사람, 성실하게 연구에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중을 거듭하여 선정,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기타, 패널 연구의 규모나 과제 수행의 복잡함과 어려움에 대한 경영관리진의 확실하고 충분한 인식과 뒷받침 등도 연구추진과정에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연구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을 기할 수 있다.

2. 설문구성의 문제

현재, 설문내용의 구성과 개발이 이론적 배경에 대한 진지하고 충분한 검토와 안내없이 급하게 줄속으로 진행되어 온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설문구성의 상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선, 연구목적과 인식관심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현재의 연구의 기본 목적이 청소년들의 생활의 여러 측면들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를 얻는데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진술로 되어 있다. 따라

서, 연구목적에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연구의 방향과 연구내용의 선정, 변수 및 척도의 구성과 같은 설문구성의 방향이 잡힐 것이다.

그리고, 이와 연관된 문제로서, 종단적 연구에 부적합한 주제, 즉, 횡단적 연구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주제가 설문문항에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자문을 통하여 가장 많이 지적받은 부분이 바로 이부분이다. 따라서, 향후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분한 이론적 안내와 검토를 통하여, 횡단적 연구만으로도 충분한 종속변수는 다 제거하고, 종단적 연구에 필요한 종속변수를 새로이 첨가하여 설문의 구성을 새롭게 구조화할 작정이다.

다음으로, 현재 설문구성과 관련된 문제는 너무 과도한 분량의 문제이다. 많은 분량의 설문지는 조사에서의 불성실한 응답을 낳아 비표집오차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설문지의 분량을 줄이거나, 설문지를 분할하여 몇 개의 설문지로 나누는 방법을 향후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 역시 앞에서 살펴 본 연구목적의 구체화, 종단적 연구목적에 맞는 종속변수의 설정 등의 문제와 맞물려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향후 이론적 안내에 따른 설문지의 재구조화에 달려 있다. 향후 설문 구조를 이론적으로 정밀한 검토하는 작업은 전체를 청소년 사회화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통합하여 묶거나, 아니면, 자문회의에서 나온 애기대로 가장 불요불급하고 종단적 연구에 의미있는 종속변수를 하나로 좁혀서 치밀하고 심도 깊은 설문지를 구성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설문항목을 상시항목과 임시항목으로 구별하여 상시 항목은 매년 조사하고, 임시항목은 매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격년 혹은 3년 등으로 조사기간을 분리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이론적 안내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재의 설문구성의 문제는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의 남은 기간동안에 설문지의 구성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를 통하여 수정, 보완할 예정으로 있다.

3. 연령 설정의 문제

연령 설정의 문제도 또한 중요하다. 연구대상에 대한 연령기준의 설정은 본 패널 연구의 이론적 의의 뿐만 아니라 표집방법과도 연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졸속이나 습관에 따라 연령을 설정하는 것은 향후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충분히 낳을 수 있다.

연령 설정은 기존의 문헌 연구와 이론적 검토를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종속변수별로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에 보이는 자아관이나 자기 통제력 등은 대부분 보다 어릴적에 형성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종속변수별로 종단적 연구의 연령설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면밀한 이론의 안내를 받은 다음 현실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설문지 개수의 문제와도 연관되는 문제이며, 또한 표집방법과도 연관된 중요한 문제이다.

향후, 내년 상반기까지 연령문제도 면밀한 검토를 거칠 예정으로 있다.

4. 조사시점의 선정 문제

본 연구의 조사시점은 상반기로 한다. 리서치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하반기(9월-12월) 조사시점의 설정은 본 연구의 성격이 청소년들

을 대상으로 장기간 종단적으로 추적조사해야 한다는 점과 한국의 현실상 중 3, 고2, 고 3생들에 대한 조사 연구의 어려움으로 인해 표본이탈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다른 패널 조사와는 달리, 본 청소년 패널조사의 경우에는 상반기를 조사시점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표본 관리의 문제와 예산의 문제를 고려하여, 조사 시점을 매년 상반기로 선정하였다. 또한, 조사시점의 상반기로의 선정과 이동은 예산이월에 의한 현재의 부족한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가적인 장점도 동시에 있다.

5. 한정된 예산과 표집방법의 선정 문제

현재, 표집방법에 대한 검토를 세밀하게 진행 중이며, 아직 표집의 규모와 표집대상지역의 규모 등에 검토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표집 규모의 선정과 표집대상 지역의 규모의 선정은 표집방법과는 별도로 예산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의 예산 규모의 확정을 보고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내년 상반기 조사전까지 표집방법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좀 더 진행시킨 후에, 예산에 맞춰 표집 규모와 표집대상 지역의 규모를 선정하게 될 것이다.

IV. 2003년도 연구계획 및 일정

IV. 2003년도 연구계획 및 일정

2003년에 진행되어야 할 주요 연구계획은 설문지의 확정, 표집방법의 확정, 실사기관의 선정, 실사, 1차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 1차년도 데이터베이스 CD롬 제작, 기초 조사분석보고서의 발간 등이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연구일정을 월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월 ~ 3월 : 설문지의 확정, 표집방법의 확정, 실사기관의 선정

4월 ~ 5월 : 실사관리 및 진행

6월 ~ 9월 : 1차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

10월 : 1차년도 데이터베이스 CD 롬 제작 발간,

기초조사분석보고서의 발간